

운남서 커피로 '사랑 키워가는' 중한 국제 부부

차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운남 아라비카의 맛과 열정



올 3월, 커피공장에서 수강생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한국인 김태호와 중국인 안해 왕위정. / 취재원 제공

중국 운남성 안녕시의 운남리공작업대학내에는 특별한 커피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인 김태호와 중국인 안해 왕위정이 함께 운영하는 이 공장은 커피 로스팅, 생산·연구개발(R&D), 커피 원두 판매, 교육상담 등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약 700평 방미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로스팅 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서 내려지는 진한 커피 향이 방문객의 감각을 사로잡는다.

부부는 이듬해 운남산달(山达) 커피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운남의 보이(普洱), 보산(保山), 립창(临沧) 등 주요 커피 재배 지역을 직접 답사하며 고품질 커피 원두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왕위정은 당시 운남의 일부 커피 생산지는 과학적인 재배 및 정밀화 관리가 부

족한 실정이었다고 커피 생두의 품질이 고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피 원두 가공공장과 협력해 생산 시준전 수확 요구 사항, 처리 절차, 선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중 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해 고품질 커피 원두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난해 1월, 김태호와 왕위정이 운남 커피밭에서 커피 원두를 촬영하고 있다. / 취재원 제공

일본에서 만난 인연 운남으로 이어지다

한국 인천 출신인 김태호와 중국 운남 출신인 안해 왕위정은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커피에 대한 공통된 열정이 중국 커피의 주산지인 운남에서의 정착과 창업으로 이어졌다. 운남성은 독특한 지리적 기후와 풍부한 커피 자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커피 산지로 산업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우수한 창업 환경이 두 사람의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8년말 운남성에 입성한 김태호

한국 미용사 "신강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한국 수원 출신의 미용사 안종욱은 20년 넘게 중국 신강위급자치구에서 살고 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우룸치에서 사업에 성공해 다문화 가정을 꾸렸고 중국에서 영구거주 자격을 얻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우룸치의 한 대형 한국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감속 출신의 처녀 사기방을 알게 됐다. 비슷한 또래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후날 시장 기회를 포착해 우룸치에서 창업했다. 처음에는 30여평방미터의 가게를 세내었으나 지금은 자가 매장이 2개로 늘었다.

안종욱은 사업 기회를 넓히고 의사소통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차례 중국어를 전문 배웠다. 현재 안종욱 가게에서 일하는 신강 각 지역에서 온 실습생들은 함께 기술을 배우며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종욱은 사업외에도 신강 여러 민족 주민들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그는 매주 월요일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주는 일을 십년 넘게 해오고 있다. 안종욱의 미용실을 찾는 고객은 주로 단골손님들이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손님들도 많은데 오래동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

안종욱 부부는 우룸치에서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잡았다. 현재 아이 셋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다. 큰아들은 신강의과대학에 다니고 있고 막내는 지금 초학교 1학년이다. 안종욱은 "신강은 포용적인 곳입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제 마음은 신강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 신화사



3월 15일, 우룸치 시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안종욱씨가 고객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 신화사

보장했다.

운남 커피산업의 도약과 브랜드 구축

김태호 부부는 그후 수년간 100년 이상의 커피 재배 역사를 갖고 있는 운남 커피산업의 빠른 발전을 목격했다. 2024년말 기준, 운남의 커피 재배면적은 8만헥타르를 넘어섰고 연간 생산량은 14만톤에 달해 중국내 1위를 차지했다. 운남 커피산업의 품질 관리와 정밀가공 기술도 해마다 향상돼 시장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태호는 운남은 커피 재배 기술, 가공 기술 및 품질 관리 등 여러 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며 "회사로서는 이제 운남에서 최상급 커피 원두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태호 부부는 지역별 커피 특색과 풍미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들은 노강(怒江) 변의 보산, 구름과 안개 자욱한 보이, 중국-만파 국경의 맹련(孟连), 그리고 립창 천갱(天坑) 등지의 커피 농가, 가공공장 등과 깊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미래 비전

현재 김태호 부부는 운남리공작업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커피 제조 및 추출 등 기술을 가르치며 매주 월·수·목요일 오후에 리론과 실연을 결합한 수업을 진행한다. 운남 커피산업이 규모화에서 고품질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커피산업에 필요한 기술형 인재 양성과 교육·인재·산업사슬의 상호 융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차에 이어 커피는 중국의 또 다른 명함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태호는 "앞으로 운남 아라비카 커피 홍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전세계가 운남 커피의 맛과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전했다.

/ 신화사

[전망대]

료녕철인과의 대결은 중원 다툼이 승부처



제2라운드 청도홍사대 연변룡정커시안 경기 한 장면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라운드 청도홍사와의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1초를 두고 얻은 페널티킥으로 금싸라기같은 1점을 챙긴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오는 4월 6일 오후 3시에 심양시 올림픽체육중심체육장에서 갑급리그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호화진영 료녕철인팀과 격돌하게 된다.

2024 시즌에 비해 경기 일정이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 상대마다 만만치 않아 꺾마다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지난해에 4위로 슈퍼리그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슈퍼리그 진출을 목표로 내걸고 새로 14명 선수를 영입하여 팀의 실력을 보완하였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이는 선수는 바로 몸값이 170만유로인 음벤자(姆本扎, 9번, 25세, 콩고)와 100만유로의 펠리페(费利佩, 15번, 30세, 브라질)이다. 중원에서 전의농(연변팀에서 활약했음) - 펠리페-쿠니모토 요시히로(邦本宜裕)가 공을 통제하고 공격선에서 안의은(중국대북), 음벤자, 진영택이 3개의 창끝이 되어 상대의 수비선을 파고드는 료녕철인은 현 갑급리그 팀들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뽐내는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3월 29일 저녁, 제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중경동량룡에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골을 허락하고 패하였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가 쌓이고 역수로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진행된 경기라는 점과 상대 역시 376만유로 몸값으로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강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료녕철인의 실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경기 패인을 많은 축구평론가들은 펠리페와 쿠니모토의 연락 부진을 꼽았는데 연변팀에서 많이 참고하리라 믿는다.

강팀에 강하던 연변팀이 아닌 요즘, 연변팀에는 지난 청도전에서 보여준 끈질기고도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수요되고 상대의 약점이나 주요 고리를 뚫고 놓지 않는 '악바리' 전술이 필요하다.

료녕철인의 우세는 든든한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이다. 따라서 쿠니모토-펠리페 조합의 패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도중에 끊기면 원반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은 음벤자 혹은 진영택의 단독 돌파에 의거해야 하는 결과를 불러와 공격수들의 체력 소모를 다그치게 된다. 하기에 연변팀은 료녕철인을 제압한 중경동량룡과 비슷하게 수비선을 두텁게 깔고 하프선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원 압박 전술로 료녕팀의 공격 루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연변팀 감독 2년 차를 맡고 팀내 선수들의 특점과 기량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기형 감독이 료녕팀의 중원 배합을 차단할 수 있는 선수들로 앞뒤 허리를 튼튼히 하고 반격 기회를 잘 포착하여 유효하고도 신속한 역습으로 상대 진영을 휘젓는다면 지난 경기에서 전력 소모가 큰 료녕철인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경기에서 료녕철인의 승리가 60% 이상으로 예상되나 연변팀이 최대한 합당한 전술로 대응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또 한층의 기적을 창조하지 않겠는가고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 김태국기자

길림성교육학원, 훈춘·룡정서 교수연구 활동 성료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길림성 교육학원 소학교교수연구양성부는 훈춘시제6소학교와 룡정시실험소학교에서 성급교원원 지정 학교 교수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교육개혁 심화와 기초 교육질 향상을 목표로 성, 시, 현, 학교간 교수연구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활동은 현지 조사, 교수 지도, 교원연구 지도, 모범 리더십 및 토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길림성 교육학원 전문가들은 직접 수업을 참관하며 기초 교원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 수업을 통해 선진적인 교수리념과 방법을 공유하며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

훈춘시제6소학교에서는 어문, 수학, 영어, 도덕과 법치, 과학, 서

법 등 다학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룡정시실험소학교에서도 교원들은 적극적으로 성급교원들과 함께 교육 난점과 열점 문제들에 대해 연구토론했으며 교육질 향상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기초 학교에 선진적인 교수리념과 방법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원들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교류,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참가 교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교수 역량을 확장하고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길림성교육학원 소학교교수연구 양성부측은 "앞으로도 교원원 지정 학교와의 협력을 지속해 교육 발전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파기자

오문서 펼쳐진 한국 풍물놀이 공연

3월 23일, '2025 오문국제퍼레이드(幻影大巡遊)' 행사 현장에서 펼쳐진 한국 풍물놀이. 이날 오문문화이 주최한 오문 조국 귀환 26주년 기념 '2025 오문국제퍼레이드' 행사가 오문 세인트 폴 성당 유적에서 개막되었다.

/ 신화사

